

## 요동땅은 우리의 본향이다

양태진\_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소장

**역**사상 분명한 우리의 영토였던 요동(遼東/lia-tung)땅은 우리 한민족이 오랫동안 살아 온 옛 터전이다. 고조선시대는 물론 고조선을 계승해 일어난 고구려 역시 요동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나라 말기의 실권자였던 이홍장(李鴻章)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즉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이 마관조약(馬關條約) 체결시 요동(遼東), 대만(臺灣), 펑호도(彭湖島)를 일본에 넘겨준데 대해 청나라 조정의 힐책이 있자 응대하기를 요동은 본시 조선의 땅으로 이번에 부득이 떼어 내줄 수밖에 없었다(遼東 宋明以來 本是 朝鮮之屬地 我朝入關前 所得也)라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조 후기의 유명한 실학자이며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저자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도강록(渡江錄)」을 통해 연경(燕京)을 오가는 도중 요동땅을 지나면서 언급하기를 “요동이 본시 조선의 옛 땅임도 모르고”라는 울분어린 감회를 토로하고 있으며 이는 연암선생 이전에도 이후에도 수많은 조선의 식자들이 읊조려 왔었다.

이 같은 영토의식은 고려 말 요동정벌정책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는데 역사에는 가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나 정녕 이 당시 요동정벌이 단행 되었더라면 우리의 역사 특히 북방영토사는 획기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요동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절절했던가는 역사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다. 즉 이 지역을 장악한 민족과 국가는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 지역을 상실한 나라는 그 반대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특히 요동지역은 한족(漢族) 중심의 중국이 그 세력을 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필수지역이었으며 아울러 본토를 지켜내는 요지였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 본토를 통일한 이후의 제국(諸國)들은 한결같이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국운을 걸고 쟁탈전을 벌였다.

그 같은 역사적 사례가 모용선비족을 위시, 수,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에서 읽을 수 있다. 반대로 이 땅을 지키기 위한 혈전은 고구려의 대응 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저 유명한 광개토대왕도 모용선비족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을 방어하기 위해 외치기를, “고

